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

최혜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992년부터 시작된 사전 편찬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이 사전에는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 등 50여만¹⁾ 단어가 수록되었다. 전체 면수도 본문만 7,300여 면이므로 기존의 대사전과 비교하면 최대 두 배 정도의 부피가 된다. 8년 동안 총 500여 명의 인원이 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기존 사전의 내용과 소설, 수필, 신문, 잡지 등 5,000만 어절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사전 편찬 전 과정의 전산화 체제를 구축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다.

언어 생활의 표준을 제시한다는 시급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출간은 무엇보다도 기존 사전들의 맞춤법 시비에 종지부를 찍는 중대한 결실이다. 현행 어문 규정을 정비한 지 십여 년이 흘렀지만 이 규정이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어사전들마다 표기 등에서 적잖은 차이를 보였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막고자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찬하면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현행 어문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단어 하나하나에 직접 적용하였고,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명확히 해석하여 혼란스러웠던 부분을 대폭 정비하

1) 우리가 검토한 것 중 약 40만 단어를 수록한 사전이 최다 어휘수를 보인다.

였다.

이 글에서는 어문 규범과 관련된 것은 피하고 주로 사전의 형식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표준국어대사전』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표제어

사전에 수록할 표제어를 선정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존 사전²⁾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사전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제어별로 하나하나 오려서 '표제어별 비교 카드'에 담고, 만일 표제어가 기존 사전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졌거나 6개 사전에 모두 실려 있는 말이면 일단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채택된 표제어 중 기존 사전에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따로 모아 어문 규정의 기본 원칙에 맞추어 표기 및 표준어 판정을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는 크게 일반어와 전문어, 북한어, 방언, 옛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방언, 옛말 등을 완전히 배제하고 현재 쓰이고 있는 표준어를 수록하는 것만으로 표준어 보급이라는 국어사전의 1차적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이나 비표준어 등 언어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또한 사전의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 사전에서는 표준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비표준어, 방언까지 수록하여 일반인들이 표준어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어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기존 국어사전들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전문어들을 우선 선정 대상의 자료로 삼았고, 영역별 전문어 사전과 전문 서적에서 폭넓게 나타나는 전문어들 또한 수집하였다. 각 전문 영역별로 표제어 수가 균형이 맞도록 하였고 전문어를 제시할 때는 단어 이상의 단위에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

2) 검토 대상이 되었던 사전은 『국어대사전』(민중서림), 『새우리말큰사전』(삼성출판사),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과 북한에서 편찬한 『조선말사전』, 『조선말대사전』 모두 6종이다.

정에 따라 “을³⁾ 사용하여 띄어쓰기 단위와 결합 구조를 보여 주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북한어이다. 우리 사전에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을 참고하여 북한에서만 쓰이는 말뿐만 아니라 남북의 어문 규정의 차이로 북한에서 달리 표기하는 단어들까지 실어 주었다. 가능한 한 뜻풀이는 남한어의 형식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단어의 표기가 남한의 어문 규정과 다를 때는 뜻풀이 끝에 남한식 표기 정보도 제시하여 한민족의 언어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에 힘을 썼다.

2. 발음 및 활용 정보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 규정’의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따른 표준 발음을 기초로 하여 전문 발음 사전에 버금가는 정확하고 자세한 발음 표시를 하였다.

현대 표준어인 단어에 한하여 발음을 표시하였는데 발음 표시는 표제항(표제어, 표제어와 조사의 결합형, 표제어의 활용형)의 표기와 발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와 연음화 현상만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준 발음법’에서 발음이 둘 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을 이용하여 복수 발음이 문제가 되는 해당 음절에 둘 이상의 발음을 병기하여, ‘/’의 왼쪽에는 원칙적인 발음을, 오른쪽에는 허용되는 발음을 표시해 주었다.⁴⁾

또한 기존 사전에서는 표제항만을 중심으로 발음 표시가 이루어져 있어 이들이 실제 발화나 문장 속에서 후행 요소와 결합할 때의 다양한 발음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사전에서는

3)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4) 한 표제어 안에서 둘 이상의 음절에 복수 발음 문제가 걸릴 때에는 ‘/’ 왼쪽에는 해당 음절 모두의 원칙 발음을, ‘/’ 오른쪽에는 해당 음절 모두의 허용 발음을 제시한다.

표제항의 발음 표시란 외에 별도의 발음란을 두어 발음 변화가 나타나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 또는 용언의 활용형을 제시한 후에 여기에 직접 발음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국어의 발음 변화를 시각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언과 조사와의 결합형의 발음 변화는 표제어의 품사 정보 다음의 ‘〔 〕’ 안에서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보조사 ‘만’과 결합하여 자음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발음을 표시하였다.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목적격 조사 ‘을’과의 결합형을 함께 보여 주며, ‘ㅈ, ㅊ, ㅋ, ㅌ/ ㄹ, ㄷ, ㄷ/ㅅ/ /ㄱ’ 따위로 끝나는 체언에서는 주격조사 ‘이’와의 결합형과 함께 순수한 연음화라도 발음 표시를 보여 주었다.⁵⁾

값 [갑] [값이[갑씨], 값만[갑-]]

ㄷ이 [디근] [디이[디그시], ㄷ만[디근-]]

넋이 [넉] [넋이[넉씨], 넋만[넉-]]

닭 [닥] [닭이[달기], 닭만[당-]]

꽃-발 [꼇빤] [꽃발이[꼇빠치], 꽃발을[꼇빠틀], 꽃발만[꼇빤-]]

용언의 경우는 발음 변화를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기본적인 활용형까지도 제시해야 한다. 기존의 사전들에서는 ‘어렵다[—따]㉠(ㅂ불)〈어려우니, 어려워〉, 묻:디㉡(ㅂ불)〈물으니, 물어〉’ 등과 같이 일부 불규칙 용언들에 한해서 활용형을 제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ㅂ불), (여불)’ 등과 같은 활용 약호를 없애는 대신 모든 용언의 활용형에 모음 어미, 매개 모음 어미, 자음 어미를 대표할 수 있는 기본 활용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사전이 지나쳤던 줄어든 형이나 발음 변화를 겪는 형까지도 보여 줄 수 있게

5) 주격 조사 ‘이’나 목적격 조사 ‘을’과의 결합형을 보여 주는 것은 언중들에게 올바른 발음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얼굴’을 의미하는 ‘낯’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낯-이’를 [나시]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는데, [나시]는 잘못된 것이며 [나치]로 발음하는 것이 올바른 발음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되었다. 그런데 자음 어미 앞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표제항의 발음과 일치하므로 ‘-다’ 형으로 제시되는 표제어로 대신했다. ‘-어’는 모음 어미의 대표어로, ‘-으니’는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의 대표어로 제시하였다. 단, 규칙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특이하게 활용하는 용언이나 발음 표시가 필요한 활용형을 가지는 용언 및 체언은 그 활용형을 ‘-어, -으니’ 뒤에 제시해 주었다.⁶⁾ 이때 활용형이 줄어든 형은 그 형태를 활용형 옆에 () 속에 넣었다.

곱다₀₂ [곱 : 따] [고와[고 : -], 고우니[고 : --]]

먹다₀₁ [-따] [먹어, 먹으니, 먹는[명-]]

놓다₀₁ [노타] [놓아[노-](놔[놔 :]), 놓으니[노--], 놓는[논-], 놓소
[노쏘]]

많다 [만 : 타] [많아[마 : 나], 많으니[마 : 느-], 많소[만 : 쏘]]

밟다 [밥 : 따] [밟아, 밟으니, 밟고[밥 : 꼬], 밟는[밤 : -], 밟지[밥 :
찌]]

가다₀₁ [가, 가니, 가거라]

오다₀₁ [와, 오니, 오너라]

활용이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동사는 그 제한된 활용형을 활용 정보란에 표시하지 않고 예처럼 뜻풀이 앞에 ‘(())’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용언의 변화형은 용례에서도 반영되어 용언의 실제 쓰임을 보여 주었다.

데리다 「동」 ① 【…을】 ((‘데리고’, ‘데리러’, ‘데려’ 꼴로 쓰여)) 아랫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자기 몸 가까이 있게 하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아이를 데리러 가다/그는 아들을 항상 데리고 다닌다./아들이고 딸이고 낳아 본

6) 이때 ‘가득-차다’처럼 IC분석 기호가 있는 경우는 기호 뒷부분의 활용형, 여기서는 ‘-차, -차니’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부표제어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다’의 활용형 제시도 간편하게 된다.

적도 없는 작은숙부는 한때 시골 형님의 딸을 데려다 길러 보려고 한 적이 있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3. 문법 정보

문법 정보도 더욱 자세해졌다. 특히 용언의 문형 정보는 일부 소사전에서 시도된 이후 대사전급에서 처음으로 본격 적용된 것이다. 우리 사전의 문법 정보는 크게 품사 정보, 활용 정보, 문형 정보, 기타 문법 정보로 나눌 수 있다. 명사, 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외에 어미와 접사를 품사 정보란에 제시하였다. 이는 뜻풀이를 끝까지 보지 않고도 그 표제어가 어미와 접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더 하위적인 분류, 예를 들면 '선어말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접두사, 접미사' 등은 풀이에서 드러나게 하였다. 어근, 어간, 격조사, 인칭 대명사, 자동사, 타동사 등은 품사 정보에서 제외되었다. 이들 역시 뜻풀이나 기타 문법 정보란에 반영되고 자동사, 타동사에 해당하는 정보는 문형 정보란에 반영하였다. 또한 단어가 아닌 구는 품사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문형 정보는 문장을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각 용언이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들(또는 논항)의 순서 있는 목록을 의미한다. 우리 사전에 오를 문형 정보에도 용언의 필수적 성분만을 제시하였다. 이때 주어 성분은 생략하였기 때문에 문장을 구성할 때 필수적 논항으로 주어 성분을 요구하는 자동사나 형용사에는 문형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주어가 가지는 의미·통사적 제약은 문법 정보란에 제시하였다.

하나의 문형 정보란에 표시되는 성분들 간의 순서도 문형 정보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성분들 간의 순서가 뒤바뀌면 비문법적인 혹은 부자연스러운 문장⁷⁾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분들 간의 순서가 뒤

7) a. 어머니는 그녀를 머느리로 여겼다. b. *어머니는 머느리로 그녀를 여겼다.
c. 어머니는 그녀를 바보라고 여겼다. d. *어머니는 바보라고 그녀를 여겼다.
a, c만이 문형 정보 '【...을 ...으로】 【...을 -고】'가 인정된다.

바뀌면 비문법적 혹은 부적격한 문장이 되는지를 살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용언과 한 성분을 이루기 쉬운 것일수록 용언에 가까이 놓았다. 이때 어느 성분이 해당 용언과 한 성분을 이루기 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언어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순서를 택하였다. 이렇게 문형 정보란에 제시된 정보는 용례를 통해 그 자세한 쓰임을 보이도록 충분한 용례를 제시하려고 하였다.

가깝다 [---따] [가까워, 가까우니] 「형」[㉠] 【…에서】 【…에/에게】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은행에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로 하자.//난로가 창에 **가깝게** 놓여 있다.//거리로 따지면 우체국이 백화점과 더 **가깝다**.//그들은 직장이 서로 **가까워서** 자주 마주쳤다. [㉡]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 『나는 그와 친형제처럼 **가깝다**.//집안끼리 **가깝다**./우리는 서로 흥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다. [㉢] 【…에】 [㉣] 【…이】 어떤 수치에 근접하다. 『일어나 보니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었다./그 영화는 천여 명에 **가까운** 관객이 몰렸다.//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때가 **가까웠다**./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가깝도록** 자식이 없다. [㉤] 벌다[㉥][㉦][㉧][㉨][㉩]

겨루다^이 [겨루어(겨뤄), 겨루니] 「동」 【(…과) …을】 【(…과)-느지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상대 선수와 기량을 **겨루다**.//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기량을 **겨루게** 된다.//나는 친구와 누가 빨리 달리는지를 **겨루었다**.//아이들은 누가 점수를 더 받는지를 **겨루었다**. [㉪]겨룸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표제어의 쓰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한 문법 정보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문형 정보에 제시해 줄 수는 없으나 문형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즉 단어의 음운·형태 결합상의 제약 및 의미 선택 제한, 활용상의 제약 등을 기타 문법 정보란에 보여 주어 단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⁸⁾

간10(間) 「명」 「의」 ③(('-고 -고 간에', '-거나 -거나 간에', '-든지 -든지 간에' 구성으로 쓰여)) 앞에 나열된 말 가운데 어느 쪽인지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만 해라.

오죽이 「부」 ((주로 미래 시제와 의문형 어미를 가진 서술어, 또는 '-으면' 어미를 가진 서술어와 함께 쓰여)) '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오죽이**. 『집 안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밖은 **오죽** 춥겠니?/**오죽** 답답했으면 우리에게까지 그런 부탁을 했겠어?』여북.

같다 ③((선행 명사는 단독형으로만 쓰인다)) ①(('같으면' 꼴로 쓰여)) '-라면'의 뜻을 나타낸다. 『옛날 **같으면** 남녀가 한 자리에 앉는 건 상상도 못한다. ②(('같은' 꼴로 동일 명사 사이에 쓰여)) 기준이 될 만한의 뜻을 나타낸다. 『말 **같은** 말을 해야지... ③(('같아서(는)' 꼴로 '마음', '생각' 따위의 명사나 일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지금의 마음이나 형편에 따르자면'의 뜻으로 쓰여 실제로는 그렇지 못함을 나타낸다. 『마음 **같아서**는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4. 뜻풀이

도대체 「부」 도무지.

도무지 「부」 도대체.

겨우 「부」 어렵게, 힘들이어, 가까스로, 근근히.

8) 문법 정보가 둘 이상일 때에는 음운론적 환경, 결합 제약, 굳어진 구성의 순서로 제시하고 정보와 정보 사이에는 특별한 기호를 첨가하지 않았다.

-았- 「어미」((끝 음절의 모음이 'ㄱ, ㄷ'인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다른 어미 앞에 붙어)) ①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어미.

가까스로 「부」 간신히, 겨우, 애를 써서.

고리타분하다 「형」 고리고 타분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존 사전에서 많이 범했던 위의 예와 같은 순환적 뜻을 피하고자 노력하였다. 사전에 올라 있는 표제어만을 뜻풀이 용어로 사용하도록 제한하였고 고졸 수준의 사전 이용자라면 누구나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고 쉬운 말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고리타분-하다 「형」 ①냄새가 신선하지 못하고 역겹게 고리다. ②하는 것이나 성미, 분위기 따위가 새롭지 못하고 답답하다.

또한 가급적 비슷한 어휘 부류들은 같은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여 뜻을 풀이 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⁹⁾ 예를 들어 ‘나가다, 나오다’처럼 같은 구성을 이루는 경우 그 풀이도 같은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뜻풀이 형식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 사전을 비교해 가면서 자주 쓰이는 몇 개의 뜻풀이 용어를 통일하는 작업도 하였다.¹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단어가 가진 기본 의미나 용법을 면밀히 따져 상세히 뜻풀이하고, 유사어·반의어와의 관계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뚜렷이 보여 주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뜻풀이 형식 중 다른 표제어를 참고하게 하는 단순 항목의 뜻풀이 형식이 있다. 이 형식은 두 표제어의 뜻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뜻의 차이가 있다면 이 형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어휘가 그 뜻풀이에 모두 대응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항목의 뜻풀이 형식을

9) 준말, 약어, 동의어 등 사전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뜻풀이 유형별 개념 정리 및 뜻풀이 형식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대명사, 수사, 의존 명사, 명사·부사 통용어, 감탄사, 관형사, 보조 용언, 접사, 문법 형태 등 품사별로 표제어를 모아 각 담당자가 유형별로 뜻풀이 형식과 용어를 재정비하였다.

10) ‘중(中)’이나 ‘등(等)’대신 고유어인 ‘가운데’, ‘따위’를 뜻풀이 용어로 선택하고, ‘흔히’는 ‘주로’보다 빈도가 낮을 때 썼다. 또한 ‘아울러’는 각각의 독립된 대상을 지시할 때 쓰고 ‘통틀어’는 상위 개념이나 새로운 의미가 생길 때 쓰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용하지 않고 각각 뜻풀이하였다.

쌓다 ㄱ「동」ㄱ1 【…에 …을】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엮어 놓다. 『광에 벼섬을 **쌓다**… ㄱ2 【…을】 ①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엮어서 구조물을 이룬다. 『담을 **쌓다**… ②밀바탕을 닦아서 든든하게 마련하다. 『민주주의의 토대를 **쌓다**… ③경험, 기술, 업적, 지식 따위를 거듭 익혀 많이 이루다. 『수양을 **쌓다**/실력을 **쌓다**… ④재산, 명예 또는 불명예, 신뢰 또는 불신 따위를 많이 얻거나 가지다. 『명성을 **쌓다**…

쌓-이다 「동」ㄱ1 【…에】 ‘쌓다ㄱ1ㄱ1’의 피동사. 『책상에 먼지가 **쌓이다**…ㄱ2① ‘쌓다ㄱ1ㄱ2①’의 피동사. 『쉬지 않고 벽돌을 올리자, 담은 점점 높이 **쌓여** 갔다. ②‘쌓다ㄱ1ㄱ2②’의 피동사. 『학문의 기초가 쌓임에 따라 그는 공부하는 데 점점 재미를 느꼈다. ③‘쌓다ㄱ1ㄱ2③’의 피동사. 『수양이 **쌓인** 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④‘쌓다ㄱ1ㄱ2④’의 피동사. 『금고에 돈이 **쌓여**도 근심이 끊일 날이 없다…ㄱ3 【…에/에게】 하여야 할 일이나 걱정, 피로 따위가 한꺼번에 많이 겹치다. 『친구에게 빛이 **쌓이다**…

기존 사전에서 부표제어는 주표제어 밑에 단순히 그 형태만을 올려 결합 가능성만을 보이고 뜻풀이나 용례가 없이 소홀히 다루어졌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부표제어의 뜻풀이를 대응되는 주표제어로 가서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해당되는 용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만약 부표제어의 뜻 가운데 주표제어와 다른 뜻이 발견된다면 따로 뜻풀이를 해 주었다. 이러한 뜻풀이 방식은 이제까지 사전 편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그냥 지나쳐 버린 부표제어의 쓰임을 하나하나 실제 예를 통해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무장06(武裝)[무 : -]「명」 ①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 또는 그 장비. 『**무장** 군인/**무장** 병력/**무장**을 풀다… ②어떤 일에 필요한 마음이나 사상, 기술이나 장비 따위를 단단히 갖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장** **무장**/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을 정신 **무장** 하나로 버티고 있다.

무장-하다〔무 : ---〕「동」 【…으로】 ①=>무장06 ①. 『각종 무기로 무장한 군대/그들 삼적(蔘賊)은 대부분 일본 낭인들이었으며 일본도로 무장하고 작당하여 토굴에 임하였다.《박완서, 미망》 ②=>무장06 ②. 『투철한 애국심으로 단단히 무장하다…《이병주, 관부 연락선》

감쪽같다 [--깁따] [-같아, -같으니] 「형」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아니하다. 『위장술이 감쪽같아 탄로 나지 않았다./종이로 만든 꽃이 감쪽같아서 진짜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감쪽같-이 [--까지] 「부」=>감쪽같다. 『감쪽같이 속이다/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깨진 유리잔을 감쪽같이 붙여 놓았다./숨겨 둔 비상금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대부분의 사전들에서는 ‘-하다’의 어근이나 명사를 주표제어로 하여 뜻풀이나 용례 없이 ‘-하다’를 부표제어로 실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전은 ‘민감하다’의 풀이는 ‘민감’에서 하고 ‘민감’의 예로 ‘날씨에 민감하다’를 실었던 것이다. 우리는 격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N-N구성으로도 쓰일 수 없는 표제어는 어근으로 보아 “-하다의 어근” 형식으로 풀이하고 실제로 쓰이는 ‘-하다’에서 풀이와 용례를 실었다.

민감(敏感) ‘민감하다’의 어근.

민감-하다 「형」 【…에/에게】 느낌이나 반응이 날카롭고 빠르다. 『물고기는 염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그는 자기의 입장과 조건에 민감한 반면, 나 같은 여자에게는 일종의 경멸 비슷한 무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황석영, 섬섬옥수》 ㉞둔감하다.

비표준어나 잘못된 표기의 표제어는 ‘…의 잘못’으로 풀이하였다. 기존 사전은 이 경우 화살표를 사용하여 해당 표준어를 참고하게 하였으나 일러두기를 읽지 않은 독자들이 오표기를 표준어로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뜻풀이에서 그 표제어가 잘못된 것임을 명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설레이다 「동」 ‘설레다’의 잘못.

5. 참고 정보

우리 사전의 관련 어휘에는 본말, 준말, 비슷한말, 반대말, 높임말, 낮춤말이 있다. 이때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은 관련 어휘에 포함하지 않았고 대신 뜻풀이에서 어감의 차이를 밝혔다. 동의어가 여럿일 경우는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표제어에서 뜻풀이하고, 다른 동의어 표제어는 뜻풀이한 표제어를 참조하게 하였다. 특히 일반어에서는 동의어를 최소한도만 인정하고 비슷한말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말로 처리하여 독자적으로 뜻풀이하였다.

느낌표 「명」 뜻풀이. = 감탄부·감탄 부호.

감탄-부 「명」 = 느낌표.

감탄^부호 = 느낌표.

참고 어휘는 관련 어휘처럼 표제어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어휘를 말한다. 이형태, 셋 이상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동류 개념, 상위 범주어, 하위 범주어, 동의 관계에 있는 일반어와 전문어, 별칭어나 이칭어, 느낌이 다른 의성·의태어, 모음이나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진 말, 대립적인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반의 관계로 볼 수 없는 말,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되는 말, 구별해야 하는 말, 선행하는 어간의 종류에 따라 분화되는 어미,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법 형태 등이 참고 어휘에 포함된다. 이 중 의성·의태어의 경우에는 음상에 의한 차이를 참고 정보에 밝혀 주기로 하여 ‘센말, 거센말, 큰말, 작은말’, 자음 교체형(센말이나 거센말은 아니지만 자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 모음 교체형(큰말이나 작은말은 아니지만 모음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경우)을 제

시하였다. 우선 관련되는 의성·의태어를 작은말 계열, 큰말 계열로 나누고 각 계열별로 가장 어린말에서, 각 계열에 속한 어휘 전체와 다른 계열의 대표 어휘를 ‘:’ 기호 뒤에 제시하였다¹¹⁾. 사전 이용자는 대표 어휘의 참고 어휘를 찾아봄으로써 같은 계열의 단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

6. 용 려

사전의 뜻풀이에서 해당 표제어의 실제 사용을 보이는 것이 용례이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국어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용례가 부족할뿐더러, 뜻풀이에 따른 적절한 용례가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어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문헌 자료를 전산화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산화된 문헌 자료에서 표제어 집필용 용례 자료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산화된 문헌 자료는 약 5천만 어절¹²⁾로, 소설·수필·시 등 문학 작품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신문과 잡지, 일반 서적, 전공 서적, 개화기의 문학 작품, 그리고 고전 소설과 국어사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축된 전산 자료에서 용례를 추출하여 해당 표제어가 실제로 쓰인 문장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뜻풀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례를 풍부하게 들어 보이려고 한다. 모든 인용문에는 그 문장의 출전을 밝혀 주어 해당 어휘가 쓰였던 상황과 간행 시기로 미루어 보아 그 어휘가 쓰였던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용례에 나오는 단어 중 현행 맞춤법에 위배되는 표기는 모두 현행 맞춤법에 맞게 고쳐 주어 사전 이용자들에게 단어의 표준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해당 표제어 부분을 다른 기호로 대치하지 않고 어절 단위로 글꼴을 달리하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표제어의 형태가 환경에 따라

11) **잘가닥** 「부」①작고 단단한 물체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㉞**잘**각. ㉟**잘**까닥. **잘**까닥01. **잘**가닥. **잘**까닥. **잘**까닥. **잘**가닥. **잘**까닥. **잘**가닥. **잘**까닥. **잘**가닥.

12) 어절은 띄어쓰기로 구분하는 각각의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소설책 한 권은 보통 5만 내지 6만 어절 정도 된다.

변화하는 것을 쉽게 알아보게 하였다.

멀다02 [멀 : -] [멀어, 머니[머 : -], 머오[머 : -]] 「형」① 【…에서】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는 매우 멀다./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기도 했다./우리 집은 백화점과는 매우 먼 위치에 있다. ②【-기에】 ((‘-기에’ 대신에 ‘-려면’이 쓰이기도 한다)) 어떤 기준점에 모자라다. 『너의 그림 솜씨는 화가가 되기엔 아직도 멀었다./그가 상위권에 진입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③ ((①주로 ‘멀게’ 꼴로 ‘느껴지다’ 앞에 쓰여))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지 않고 서먹서먹하다. 『그가 멀게 느껴진다./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양금처럼 가라앉아 버렸으며, 병태조차도 전생에 잠깐 만났던 사람처럼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을 뿐이었다.《문순태, 피아골》 ②시간적으로 사이가 길거나 오래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햇볕은 뜨겁고 입추를 넘겨도 가을은 멀기만 하다.《한수산, 유민》 ③춘수가 가깝지 않고 매우 뜨다. 『먼 일가 친척/육촌은 오촌보다 멀고 오촌은 사촌보다 멀지 않습니까?《김동인, 운현궁의 봄》 ④어떤 시간이나 거리가 채 되기도 전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는 사흘이 멀게 병원을 다닌다. ㉠가깝다㉠, ㉡가깝다㉡, ㉢가깝다㉢④①, ㉢③가깝다㉣②.』

7. 기 타

실생활에는 쓰이지만 사전에 미처 수록되지 않은 미등재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기존 사전에서 놓쳤거나 채집하지 못한 어휘를 전산 입력된 문헌 자료를 통해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방언적인 요소가 강한 것은 표제어에서 제외하였다. ‘구살머리쩍다’(마음에 마땅치 않고 귀찮다)는 염상섭의 작품에, ‘버들눈썹’(가늘고 긴 눈썹. 또는 그런 눈썹을 가진 사람)은 박종화의 작품에 나오는 것으로 전산화된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전에 처음 올린 어휘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어휘들도 최대한 반영하였다.¹³⁾ 최신 정보를 실어 주는 가운데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행정 구역과 1998년 행정 구역 정비 때에 변경된 사항, 1999년 정부 기구 개편 사항 등도 사전에 반영하였다.

개천2(价川) [개: -] 『명』 『지2』 ①평안남도 개천군에 있는 읍. ...

② 『북』 광복 이후 북한이 신설한 시의 하나. 평안남도에 속해 있으며 1991년 행정 구역 개편 때 읍에서 시로 승격되었다.

김포(金浦) 『명』 『지2』 경기도 서쪽, 한강 하구에 있는 시. ...

김포-군(金浦郡) 『명』 『지2』 경기도 서부에 있던 군. 1998년 4월 행정 구역 개편 때 김포시로 승격되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법』 문화 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재의 지정, 보호,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

문화재^관리청(文化財管理廳) 『정』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 1999년 5월 행정 조직 개편 때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격되었다.

그동안 ‘-(으)우’는 여러 사전에서 ‘-(으)오’의 잘못이나 방언으로 처리되어 왔다. 주로 나이가 든 여성들이 손위 동서나 언니 등의 친근한 손윗사람을 대할 때 ‘같이 가우’, “얼마나 힘드우?”, “어서 오우” 등과 같이 쓰는데 이는 단순히 ‘-(으)오’의 잘못된 형태가 아닌 일정한 의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은 1997년 국어연구원에서 실시한 ‘서울 토박이말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언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기존 사전과는 달리 표준어로 채택하였다.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사전에서 보여 준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13) 자료를 통해 얻은 신어로는 ‘가정간호사’, ‘관광특구’, ‘광케이블’, ‘국민차’, ‘그린면허증’, ‘그린카드’, ‘독거노인’, ‘돈다발’, ‘돌발사’, ‘록오페라’, ‘망국병’, ‘미분양’, ‘바보상자’, ‘배낭여행’, ‘브이오디’, ‘실버타운’, ‘쓰레기 종량제’, ‘역세권’, ‘온난화’, ‘인턴사원’, ‘지구촌’, ‘찜통더위’, ‘차세대’, ‘체팅’, ‘타임캡슐’, ‘펀드매니저’, ‘폐휴지’, ‘폭주족’, ‘폰뱅킹’, ‘표밭’, ‘핸드폰’, ‘홈장’, ‘히든카드’, ‘힙합’ 등이 있다.

수정하였다. ‘대계’는 ‘대’의 원어가 ‘大’로 정의되었는데, 원래 ‘대계’는 대나무와 같이 마디가 진 데서 온 이름이므로 우리 사전에는 원어 ‘大’를 삭제하였다. ‘소경’의 높임말로 뜻풀이되던 ‘장님’은 실제로 높임의 뜻이 없는데도 기존 사전들에서 잘못된 뜻풀이가 되풀이되던 단어이다. 이를 수정하여 우리 사전에서는 ‘맹인’의 동의어로 처리하였다.

장님[장 : -]「명」=맹인.